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사회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21년 6월 4일 (금) 14:00 - 17:40

장소 : ZOOM 온라인 화상회의

주최 DKU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후원 DKU 단국대학교 NRF 한국연구재단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사회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6월 4일 (금) 14:00~17:40
ZOOM 온라인 화상회의

주최 DKU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후원 DKU 단국대학교 BANKOOK UNIVERSITY NRF 한국연구재단

- 프로그램 -

□ 일시 : 2021년 6월 4일 (금) 14:00 - 17:40
□ 장소 :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 주최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 후원 : 단국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주제 : 사회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1부		사회 : 이유진(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 윤승준(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제2부		사회 : 이유진(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발표 14:10-14:45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교양교육	발표자 : 서문석(단국대) 토론자 : 선재원(평택대)
제2발표 14:45-15:20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화룡 :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주환(동아대) 토론자 : 권오용(충남대)
휴식 15:20-15:30		
제3발표 15:30-16:05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의미와 현재성	발표자 : 김민수(단국대) 토론자 : 김동혁(광주과학기술원)
제4발표 16:05-16:40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 교육 - 한양대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과목을 통해 살펴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	발표자 : 김성희(한양대) 토론자 : 남진숙(동국대)
제3부		좌장 : 이동희(단국대학교)
16:40-17:3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7:30-17:40	폐회식	

- 개회사 -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윤승준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작년 '인문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이어서 고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시카고대학의 총장 허친스(Robert Maynard Hutchins)는 아들러(Mortimer J. Adler)의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The Great Books Program)에 동의하여 총장으로 재직하면서도 매주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고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전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임과 동시에 보상이기도 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고전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이 되기를 희망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이 주는 대답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온 젊은 학생들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직면해 보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들에게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기존의 지식이 과연 참인지, 그 옳고 그름에 대해 다시 따져 묻게 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지난날의 자신을 초월하여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양교육의 본령이고, 고전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교육이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야 합니다. 케케묵은 고전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차분히 고전에 침잠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고전교육을 둘러싼 여건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본 이들은 고전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작년부터 <명저읽기>라는 교양필수 교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인문, 사회, 자연 계열의 고전 명저를 통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전읽기는 분명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전읽기는 또한 보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이처럼 도전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한 고전교육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방법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표를 맡아주신 서문석 교수님, 김주환 교수님, 김민수 교수님, 김성희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선재원 교수님, 권오용 교수님, 김동혁 교수님, 남진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이유진 교수님과 이동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과 학술대회 준비로 애써 주신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윤승준

- 목차 -

▌제1발표▐

□ 애덤 스미스의『국부론』과 교양교육 ····· 1

발표자 : 서문석 ▌ 단국대학교

토론자 : 선재원 ▌ 평택대학교

▌제2발표▐

□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활용

: 막스 베버의『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 23

발표자 : 김주환 ▌ 동아대학교

토론자 : 권오용 ▌ 충남대학교

▌제3발표▐

□ 한나 아렌트의『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의미와 현재성 ····· 43

발표자 : 김민수 ▌ 단국대학교

토론자 : 김동혁 ▌ 광주 과학기술원

▌제4발표▐

□ 한양대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 교육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을 통해 살펴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운영과 구성 ····· 61

발표자 : 김성희 ▌ 한양대학교

토론자 : 남진숙 ▌ 동국대학교

▌제1발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교양교육

발표자 : 서문석 ▌ 단국대학교
토론자 : 선재원 ▌ 평택대학교

▌제1발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교양교육

서문석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목 차 |

1. 서론
2. 대학교양교육 텍스트로서의 『국부론』
3.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4.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5.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 **대학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급감
  - 대학의 규모 축소와 경영환경 악화
  -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진행
  - 평가항목 중심의 대학 구조 개편
  - 연구와 교육에 대한 대학 자체의 논리와 주장의 재정립 필요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대학교육의 자본주의적 제한

- 대학교육을 전문지식의 습득과 직업 선택으로 직접 연결하는 역할로 제한하는 분위기 확산
- 입시경쟁률과 취업률이 대학교육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부각
- 기업이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학문분야의 강조
- 대학교육 무용론의 등장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제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대응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바탕의 기술혁신
-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의 기술혁신
- 직업의 변화와 기계나 알고리즘을 통한 인간노동의 대체
- 정부의 적극적 대응
  -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대응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 진전

- 지식의 전달과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중심교육과정에 대한 반성
- 지식 활용능력이 강조되는 역량기반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고조
- 역량기반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 지식의 융합과 활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기업의 인력채용 관행의 개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대학의 새로운 교양교육 방안 모색

- 교양교육의 중심에 고전교육에 대한 고민 내재
- 고전이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시공간에서 높이 평가되는 특성을 보유
- 교양교육은 사고의 심화, 시각의 확장, 인성 함양 등을 수행
- 고전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의 본질에 가장 부합
- 고전의 선택과 교육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확산

I. 서론

2. 연구의 목적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교양교육 방안 모색

- 교양교육이 주로 인문과학에서의 논의로 한정
- 사회과학분야의 특성상 역사, 이론, 정책의 중첩성을 반영할 필요
- 역사, 이론,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필요성 확대
- 특히, 자본주의적 대학교육의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의 변화와 미래에 관한 교양교육의 중요성 증대

I. 서론

2. 연구의 목적

Adam Smith의 [국부론]을 통한 교양교육 방안 모색

- 자본주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분석으로서 [국부론] 이해
- [국부론]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이해의 기반 제공
- [국부론]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그 의미 이해
- [국부론]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대학 교양교육의 과제
- [국부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이기심'에 대한 교양교육에서의 해석

II. 대학교양교육 교재로서의 [국부론]

1. [국부론]의 의의

자본주의 분석의 출발점

- 18세기 영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등장
- 특권적 도시 수공업의 해체와 농촌수공업의 발전
- 원격지 상업과 선대제(先貸制) 생산, 공장제수공업의 발생
- 분업의 발생 ⇒ **분업으로 [국부론]이 시작**
- 생산력의 증대
- 기계의 발명과 대규모 공장의 설립
- 해외무역과 국제적 분업

II. 대학교양교육 교재로서의 [국부론]

1. [국부론]의 의의

상품 생산과 분배에 대한 분석

- 당시 영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상주의적 사고와 정책(곡물법, 항해조례)이 지배적인 상황
- 수출 증대, 수입 억제를 통한 상업이윤 확대에 초점
- 분업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상품이 분배되는 과정에 관심
- 국민경제의 순환과정과 그 체계를 설명하고, 이를 해외무역에까지 확대
- 한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의 전과정을 설명

II. 대학교양교육 교재로서의 [국부론]

2. [국부론]의 내용

- **제1편 :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 노동생산력 개선의 원인들에 관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정태적 구조분석
  - 생산물이 국민의 여러 계급간에 분배되는 자연질서에 관하여: 노동생산물이 임금, 이윤, 지대로 각 계급간에 분배되어 가는 과정 분석
- **제2편 : 자본의 성질 · 축적 · 사용**
  - 재화의 성질, 축적 및 용도에 관하여: 자본주의의 동태적인 발전분석, 자본축적의 중요성 강조(분업,생산적 노동계급의 비율 → 노동생산력 결정 → 국부 결정)

II. 대학교양교육 교재로서의 [국부론]

2. [국부론]의 내용

- **제3편 : 각 나라의 국부증진과정**
  - 여러 국가에서 국부의 증가차이에 관하여: 농업 → 공업 → 외국무역의 자연적 순서가 왜곡되면 순조로운 발전 저해
- **제4편 : 정치경제학의 학설체계**
  - 경제학의 여러 체계에 관하여: 중상주의 무역정책 비판, 자유무역론 전개
- **제5편 : 왕 또는 국가의 세입**
  - 군주 또는 공화국의 수입: 재정학, 교육론, 종교론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1.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Adam Smith의 자유방임주의

-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시민 계급의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여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사상을 제창하였다. 그는 정부가 외적의 방어나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경제 분야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 혁명의 성공 이후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사상은 곡물법과 항해법의 폐지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후 20세기 초까지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김주환 외,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 190~191).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1.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Adam Smith의 야경국가관

- 시민 계급이 주도권을 장악한 근대 국가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경제학자가 애덤 스미스이다. <중략> 사유 재산의 철저한 보장, 개인적 이익 추구의 정당화,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결합되면서 근대 시장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김진영 외, 「경제」, 대한교과서(주), p.32~46).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1.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Adam Smith의 야경국가관

- 자본주의 초기에 애덤 스미스(Adam Smith)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경제학은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 입장을 표방했다. 이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야경 국가에 한정될 뿐 민간 경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정부라고 여긴다(『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p. 192).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1.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시장가격기구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시장 가격에 의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 주체가 이기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여겼다(『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p. 192).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1.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Adam Smith의 '이기심'과 경제제도

- 이처럼 개인과 기업은 시장에서 이기심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경제 체제는 각자의 이기심을 발동하도록 유인 동기를 제공하거나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도록 미리 만들어진 경기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 경기 규칙을 확립해 주는 규범, 법률, 규제 등을 경제 제도라고 부른다. 경제제도는 법률, 헌법 등과 같은 공식적 규칙, 행동 규범, 인습, 행동 강령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 그리고 이들 제약의 강제적인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p. 40).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1.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Adam Smith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

- 자유시장경제체제제가 성립되던 초기에 다수의 자본가들이 자유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사회 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값싸게 공급받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바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이기심이 동기가 되어 생산자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김진영 외, 「경제」, 대한교과서(주), p.32~46).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1.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

Adam Smith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

- 이기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장려하는 추진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기심만이 시장을 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의 "국부론"에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은 손'을 소개하였다. 이는 개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노력할 때보다도 오히려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더 큰 사회 이익을 초래한다고 믿는다(『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p. 35).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2.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평가

Adam Smith의 '이기심-개인의 사적 이득 추구'

-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실상 기업이 성실히 이윤추구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생산자잉여의 창출뿐만 아니라 소비자잉여를 창출해냄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경제활동이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듯이 개인의 사적이득 추구가 궁극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특별히 분배에 대한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김종석 외, 『고등학교 경제분야 교과서 내용 검토』, KDI 경제정보센터, 2005, p. 58).

Ⅲ. 고등학교 교과서 속의 [국부론]

2. [국부론]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평가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자생적 질서유지 기능'

- (교과서의) 저자들은 기업과 근로자, 국민에게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경제윤리를 갖추고 각자의 이기심을 자제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 역시 경제교과서보다는 윤리 교과서에나 어울릴 만한 훈계조의 내용이다. 뿐만아니라 사적 이익의 추구를 자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생적 질서유지기능이 있으며 이는 각 주체의 사적 이익추구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터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김종석 외, 『고등학교 경제분야 교과서 내용 검토』, KDI경제정보센터, 2005, p. 30).

Ⅳ. '보이지 않는 손' 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의 핵심키워드

- [국부론]에서는 단 한번만 언급
- 일반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외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운영되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의미한다고 해석
- 1770년대 영국에서 도시에 공장이 설립되어 도시 규모 확대
- 도시에 인구 집중과 새로운 사회체제의 규율이 필요
- 중세의 각종 관습 해체, 새로운 자본주의적 질서 형성
- 귀족과 성직자 대신에 상인과 공장주들이 사회의 중심
-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으로 도덕철학 관심 확대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등장-[천문학사]

- 불은 타오르고, 물은 다시 채워진다.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날아간다. 이것은 자신의 본성이라는 필연성에 따른 것이다.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천둥, 번개, 폭풍, 햇빛 이러한 불규칙한 현상들은 그의 호의나 분노 때문이라고 여겨졌다(Adam Smith, *History of Astronomy, in: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I. S.Ross(ed.)(Indianapolis: Liberty Classics, 1982), p. 49 ~ 50).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등장-[천문학사]

- 스미스가 창안한 표현이 아니라 고전문헌 속에 이미 가끔씩 등장
- 17C 이후 주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신의 관리, 자연의 운행에 관한 신적 지배의 같은 관념을 가리키면서 등장
- 천둥, 번개, 폭풍 등의 불규칙한 현상들에 대해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었다고 인식
- 알 수 없는, 불규칙한 현상들에 개입되어 있는 신의 간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변화-[도덕감정론]

- 토지 생산물은 언제나 그것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주민을 유지할 뿐이다. **부자**는 단지 큰 덩어리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가장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적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될 수 없는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량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중에 부지불각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 번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신의 섭리**는 대지를 소수의 귀족과 지주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분배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망각하지도 방기하지도 않았다(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pp. 345~346).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변화-[도덕감정론]

- [도덕감정론]에서 부자가 자신의 소비량 이상으로 생산할 경우 그 소비량을 넘어서는 수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
- 이런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
- 보이지 않는 손의 배후에는 신(神)이 존재
-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신의 섭리’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정식화-[국부론]

-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구입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며 그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산업보다 국내산업의 지원을 선호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의도한 것이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지도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이득을 의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의도했을 경우에 비해] 사회에 보다 적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동아출판사, 1992, p. 434).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정식화-[국부론]

- 국내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시도는 의도하지 않은 사익추구에 의한 효과적인 결과
- 절대주의 왕정에서 왕과 상인, 수공업자들의 결탁으로 상업과 수공업에서의 중세적 특권이 유지되는 상황
- 중세적 특권 대신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익추구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혁명적 주장
-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를 선택-김수행, “‘보이지 않는 손’은 혁명구호”, 경향신문, 2009. 4. 20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1.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 ‘보이지 않는 손’-[천문학사], [도덕감정론], [국부론]
  - 자신의 저작에서 단 한 차례만 언급
  - 보이지 않는 손의 공통점은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의 배후에 작동하는 원리-‘알 수 없는 어떤 것’
  - [천문학사]에서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람직하지 않게 작동되는 원리로 설명
  -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람직하게 작동되는 원리로 설명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2. [국부론]의 ‘이기심’

- ‘이기심’- [국부론]
  -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상)], 동아출판사, 1992, p. 22).
  - 신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조화로운 인간

    → 신이 정해준 정의의 법에 따라 각 개인의 이기적 목적 추구

    ⇒ 신의 뜻에 따른 사회의 이익 달성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2. [국부론]의 ‘이기심’

‘공감’- [도덕감정론]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몇 가지 행동원리가 존재한다. 이 행동원리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행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 행운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운을 얻은 타인의 행복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민(pity)이나 동정심(compassion)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느끼게 되는 종류의 감정이다(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2009, p. 3)

Ⅳ.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

2. [국부론]의 ‘이기심’

‘공감’과 ‘공정한 관찰자’- [도덕감정론]

- 공감(sympathy):
  -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 타인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
  - 타인과의 감정의 공유가 실현된 보편적 도덕감정
-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기
  - 사회 일반의 감정과 여론을 체현
  - 공정한 관찰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이기심으로 도덕적 자율 가능

V. 결론

- 대학의 외적 환경과 내적 구조의 급변으로 교양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교양교육 텍스트로서의 [국부론]의 활용과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국부론]은 상품의 생산과 분배과정 분석을 통한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저작
- 대학 교양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국부론] 은 신자유주의적 해석에 한정
- [국부론]의 핵심개념인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의 배후에 있는 신(神)의 존재를 확인
- 과도한 편향적 해석에서 벗어나 [국부론]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구성, 정책적 지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필요

▌제1발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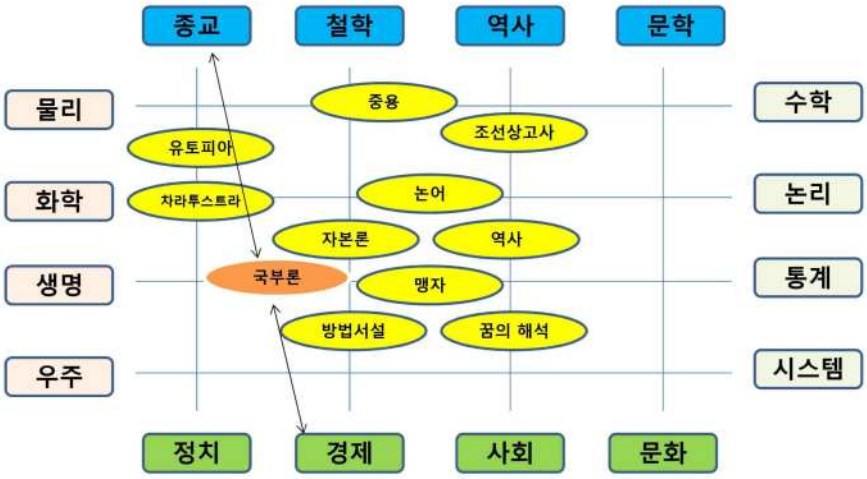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교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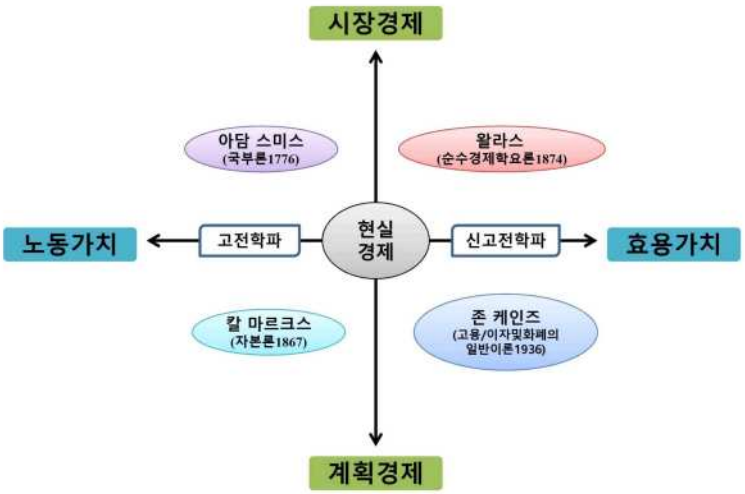
선재원 | 평택대학교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아담 스미스가 지금 한국에 온다면?
  - 묘비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 여기에 잠들다'
  - 경이 VS 한탄





아담 스미스의 주장

-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 국내 상공업자의 독점방지
  - ➔'분업'/'시장'
  - ➔각 국민의 부 증대➔사회적 격차 해소➔행복증진
- '도덕감정론'(1759)
  - 논리(로고스)+윤리(에토스: 心性)=생활(살림살이)원리
- '국부론'(1776)
  - 자기이익self-interest(1번), 이기적selfish(3번: 부정적 의미로)

국부론과 대학 교양교육

-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설과 선각적 경영자
  - 가치=자연가격(노동가치설)/시장가격(효용가치설)
  - 묘비[1723-1790]
    '모든 사람의 고유한 노동력은 재산을 만드는 근본적인 기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신성하며 침범되어서는 안된다.'
  - 로버트 오언[1771-1858](G.D.H.콜,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유일한: 미국 '선각적 경영자 그룹' GE(1920-22) 근무경험
  * http://pcpp.go.kr/images/publication/201908/34/index.html

- 지속발전 가능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와 국부론
  - 이기심 ←→ 이타심(공감능력, 배려, 존중)

▌제2발표▐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활용 :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주환 | 동아대학교
토론자 : 권오용 | 충남대학교

▌제2발표▐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활용 :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김주환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 목 차 |

1. 서론
2. 숙명적 비극의 세계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청년들
3. 칸트 배후의 사드: 고전 교육 배후의 폭력
4. 고전 교육의 목표는 힘의 강화이다
5.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경우

1. 서론

이의 제목을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활용'이라고 붙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뜨거웠던 80년대나 90년대 초의 분위기가 떠올라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려나 하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또는 그 자체로 신성한 고전의 지혜를 고작 세속적인 실용적 기술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인문과학 고전이든, 사회과학 고전이든, 자연과학 고전이든, 고전 교육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는 힘과 힘이 충돌하는 역동적인 싸움터여야 하며, 고전은 그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한, 나아가 이길 수 있기 위한 실용적 싸움의 기술서여야 하고 전술, 전략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 싸움터는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외적인 힘과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힘이 충돌하는 삶의 세계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그 외적인 힘으로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것이 크게 볼 때 외적인 자연세계,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서 사회세계, 그리고 내 안의 충동으로서 내적 자연세계를 들 수 있다. 인간의 문명적 삶이란 자연의 폭력, 사회의 폭력, 내적 충동의 맹목적 폭력과의 싸움 속에서 형태 지워진다. 지식(혜)이나 덕(아레테, 비르투)이란 이러한

싸움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무기와 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 삶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상투적인 어법인 '항해사의 비유'는 변화무쌍한 파도와 바람,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의 폭력에 맞서 자신의 배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선장으로서 우리 각자가 능숙한 항해술을 익히고, 바다, 바람, 대기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며, 그 지식과 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카이로스와 중용의 감각을 육체화 삶에 육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지식, 기술, 중용은 자유를 위한 싸움터로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덕목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자유를 향한 이 싸움에서 활용할 무기를 제공해주는 지식, 그래서 자신의 존재론적 힘이 강화 또는 고양된 듯한 느낌을 주는 지식을 고전문헌학자 니체는 '즐거운 학문(지식)'(니체, 2005)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최근 불고 있는 이른바 '인문학 열풍', '고전 읽기 열풍' 등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해 줄 수 있는 힘과 싸움의 기술을 제공해주는 '즐거운' 현상일까? 국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으로서 각종 인문학 및 고전 교육 강화 사업들,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인문, 고전 리더십 또는 창의력 프로그램들, 대중매체들에서 컨텐트 산업으로 팔고 있는 각종 힐링 내지 처세를 위한 악세사리 프로그램들 등은 고전 읽기의 불온성을 삭제한 채 순응과 처세의 노예 도덕을 가르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전 교육의 본령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든, 기업이든, 대중매체든 이 조직들의 관심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있는 것은 아닐테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인문학이나 고전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최근 확장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심층의 더욱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문학이든 고전 교육이든 이것들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잠재된 상태로 커져가고 있는 것인데, 그 욕구란 효능감의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날로 내 삶이 내 것 같지 않고 나 바깥의 다양한 외적 강제력들에 의해 떠밀리는 삶의 양태들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그렇기에 내 삶이지만 내 삶인 것 같지 않은 자유상실과 의미상실의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계와 삶의 감각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 자유상실과 의미상실의 현대적 삶에 맞서 빼앗겼던 자유와 의미있는 삶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축적되고 있다.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통치되지 않겠다'라는 자유 추구로서 비판적 삶의 열망들이 커져가는 셈이다.

이 자유 추구와 비판적 삶의 태도에 대한 열망들이 국가, 기업, 문화산업 등에 의해 탈취되고 있는 오늘날 고전 교육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보자. 특히 이 글은 대학에서 고전 교육의 당사자들인 대학생들(청년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체험하는 삶과 세계의 감각에 대한 고려에 기반하여 고전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숙명적 비극의 세계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청년들

2-1. 숙명적 비극처럼 체험되는 삶

나는 최근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김주환, 2020a; 2020b; 2020c)을 통해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삶과 의미 세계를 살펴봤다. 이 연구들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정서의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중요한 특징을 '숙명적 비극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내-존재'로서 자신들의 삶의 양식(존재 양식)을 '비극처럼 조직되고 작동하는 숙명적 세계'를 살아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무기력한 존재'로 느끼며 살아간다.

그들이 체험하기에 이 세계는 자신들의 힘으로 조직하거나 바꾸거나 작동시킬 수 있는 집합적인 인위적 발명품이 아니다. 이 세계는 마치 자연법칙처럼 주어진 세계이다. 이 세계는 인간들의 인위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나 우리의 실천적 관여와는 절연된 내가 어찌해볼 수 없는 전적으로 외적인 힘들에 의해 조직되고 작동하는 물화된 어떤 것이다. 가령 이 세계는 유사 자연법칙으로서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 부조리한 남성 패권의 폭력에 의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냐 등에 의해 조직되어 작동하는 세계이다.

코젤렉(1996)은 현대성의 중요한 시간 구조의 특징을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의 분리로 포착하면서 '현재'는 과거의 경험공간과 미래의 기대지평 사이에 벌어진 틈새의 순간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신학적 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전근대 사회의 시간 구조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전근대 사회는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이 분리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현재와 미래는 이미 과거의 경험공간의 연장일 뿐으로서,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과거에 결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삶-시간의 감각에서 세계와 자기의 삶은 인간의 실천적 관여를 통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고개를 돌려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오늘날 청년들이 느끼는 삶-시간의 감각이 이와 유사하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수저계급론이 이야기되고 이른바 '노오력'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이들의 삶의 정서를 대변한다. '해도 안된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하면 된다'라는 진취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면 한다'라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느낀다. 될 것 같은 확실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움직인다. 그래야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 그리고 숙명과 우연에 모든 것을 걸고, 퇴로를 끊어버리며, 마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기라도 할 듯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짐멜, 2005; 213)는 모험적 삶의 진취적 태도는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여긴다.

이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지만 막강한 숙명의 힘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비극 속의 영웅의 처지와 비슷하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의 감각

은 자신들이 저지른 도덕적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나 나쁜놈 취급당하며, 단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세계를 조직하는 다양한 폭력들의 막강함에 의해 할퀴을 당한다고 여긴다.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하여 마치 자연법칙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이 세계 안에서의 삶이란 비극의 경우처럼 막강한 숙명의 힘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비극 주인공의 삶이다.

물론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소한 비도덕적 실책(하마르티아)에 의해 숙명에 패배하는 영웅의 비장미 어린 운명 속에서 공포와 연민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겸손(휘브리스)과 중용의 도덕을 배우거나 유한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적 삶의 집합적 지혜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폴리스라는 집합적이고 공적인 삶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이 굳건하기에 가능했다. 페리클레스가 연속된 전란으로 황폐화된 아테네의 공동체 의식과 민주정을 복원하기 위해 디오니소스제의 마지막 날 비극을 상연토록 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라는 집합적 흥분의 도취를 경험토록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비극은 모두가 유한하기에 언제든 숙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결국 이 부조리와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되고 유사한 동료들끼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줬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숙명에 할퀴을 당하며 패배하게 되어 있는 운명에 처해진 비극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라고 느끼지만, 이들의 삶의 세계는 개별화되어 파편화된 세계이다. 말하자면 집합적이고 공적인 노력으로 같이 대안적 삶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극이 고통스러운 삶을 더 의미있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의 비극적인 삶의 무대에서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탄핵당하고 있다는 고통의 감각과 세계에 대한 분노의 감각만 남는다. 개별화되어 파편화된 청년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세계 전체가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부정의한 것으로 체험된다. 개인의 힘과 숙명적 세계의 힘 사이의 싸움!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있다. 개인은 제도적 물질성을 가지고 폭력처럼 작동하는 이 세계가 가하는 숙명의 힘과 싸워 이길 재간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는 확실히 개인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개인이 이처럼 무기력화된 시대, 개인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취약해진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 없다. 개별화의 시대일 뿐이다.

2-2.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이 찾은 돌파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신은 불의한 세계가 가하는 숙명 같은 막강한 힘에 의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삶을 체험하게 될 때 남는 돌파구는 무엇일까?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숙명의 불의에 순종하고 적응하기

이 세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이 세계가 자신들에게 가하는 힘에 맞서 이길 수 없다면 세상을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김수영은 동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끌려가고 고문받는 속에서 비겁하게 "옆으로 비켜서" 기껏 "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묻는다.(김수영. 1990: 168-170) 아무리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대적해야 할 힘이 너무 거대하면 그 힘에 대한 분노도 대적할 마음도 안생기는 법이다. 어차피 안바뀔 세상을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 분노는 자신에게로 향해 자책의 형태로 바뀐다.

> 저희는 실패가 일상이거든요. 세상 탓하고 싶은데, 지금 같아서는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제 탓 하게 될 것 같아요(청년 1).

> 세상이 미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사실 다 돈 안되는 것들이었어요. 제 전공도 그렇고, 좋아하는 공부나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졸업반 되니까 '여태껏 뭐했는지 모르겠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해놓은 게 없다.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그런 저 자신이 미워요.(청년 2)

위 인용은 내가 인터뷰했던 청년들의 말이다. 두 청년의 구술은 '세상 탓'과 '세상이 미워요'로 시작해서 '제 탓'과 '저 자신이 미워요'로 마무리된다.

어차피 안바뀔 세상이라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이라면 자기가 바뀌어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내가 이 세계가 가하는 숙명의 힘에 철저히 순응하여 그것에 적응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이 세계에 대한 규범적 비판은 소음이 되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바보 같은 행위가 된다. 이 세계가 숙명처럼 가하는 힘이 설령 부정의할지라도 그것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느낀다. 그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러한 것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유사 자연법칙이다. 이러한 삶과 세계 감각 속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비극을 통해 깨달은 휘브리스의 지혜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순응과 복종 속에서의 적응의 비겁한 삶의 윤리로 바뀐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2) 소확행, 협소한 개별 영역으로의 도피

하지만 순응하고 복종하며 세계에 적응하는 것도 피말리는 피곤한 일이다. 이 답

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들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힘이 건드리지 않는 영역을 찾아 은신한다. 인생의 커다란 목표 같은 것은 이미 결정되어있으니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 순간순간의 긴장을 찾아 기쁨을 누리거나, 타인과 엮이는 것을 최소화하여 혼자 밥먹고, 혼자 술마시며, 혼자 영화보는 개별화된 삶의 영역에서 만족을 찾는다.

이러한 유형의 개별화된 협소한 삶의 영역에서 행복을 찾는 삶의 방식은 언제나 개인들이 무기력화되는 시대 풍조가 발생할 때마다 생겨났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민주정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공화정의 틀이 흔들리며 황제정으로 들어가고, 제국 경제 하에서 중산층이 몰락해가면서 돈의 논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감각이 강해지던 기원전 1~2세기의 고래 로마시대부터 오로지 개인성의 영역으로 침참하는 온갖 철학과 사상 사조들이 나타났다. 에피쿠로스학파,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등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은 개인이나 유사 종교공동체의 학파(학술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

어차피 세상을 작동시키는 힘은 중앙집중화된 권력으로서 황제의 자의성이거나 돈과 같은 익명의 원리라고 한다면 행복은 집합적이고 공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구성하는 것에서 나올 수 없다. 행복의 자리는 공적 정치와 경제 바깥의 개인적 삶의 영역이나 공동체적 삶의 공간 뿐이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사는 어떻게 소소한 행복의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타인과 엮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 구조의 공적 개입과 개혁 등에 청년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효능감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3) 주관적 고통의 절대화: 신적 폭력의 파괴적 정념

순응하여 복종하는 것도 피곤하고, 소확행 같은 것을 하며 협소한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은거하는 것도 답답하다. 삶의 고통과 분노는 해소되지 않고 쌓인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계에 의분을 표출하는 것이다. 부정의한 세계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고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분 즉 의로운 분노이다. 하지만 이성이나 말과 달리 감정은 액체 같은 것이어서 유동하며 흐르고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최고의 사랑이 최악의 증오로 바뀌는 것이 시간문제이듯, 의분이 혐오의 파괴적 정념으로 바뀌는 것 역시 순식간이다.

이 세계가 가하는 숙명 같은 막강한 힘에 의해 청년들은 패배하고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이 세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은 무기력하다. 이 세상이 가하는 숙명의 힘보다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벤야민과 벤야민에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많은 서구의 정치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적 폭력’의 힘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의 주관적 정념에 최고 권위

를 부여한다. 합리적 논리나 규범적 정당성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긴다.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고통이야말로 자신들이 이 세계의 부당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주관적 고통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성이나 규범적 정당성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권위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 세계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있다고 여기기에 이 세계는 그 자체로 부당하며, 부당한 세계에 의해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자신들의 저항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그에 기반한 이민족에 대한 도착적 폭력의 정당화 논리와 유사하다. 마치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백년을 노예 생활하고 나라 없이 핍박 받으며 떠돌고 차별받으며 강탈, 강간 당해왔던 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의 심정에서 유대인을 제외한 온 이민족들은 부당하다. 신은 부당하게 고통받고 희생당해온 유대인의 편이다. 유대인은 선미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희생당해온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은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신적 폭력이다.

이런 식의 신적 폭력의 도덕정치, 정념의 현전의 정치가 청년들의 젠더 투쟁과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의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각자의 주관적 고통을 절대화하여 신적 권위를 부여한 후 다른 집단에 대해 혐오의 공격성을 표출할 때 자신들이 부당한 폭력에 대해 맞서는 영웅적 실천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참으로 존재론적으로 의미있고 제대로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 이들에게 자신들이 가하는 혐오의 폭력은 결코 혐오나 폭력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3. 칸트 배후의 사드: 고전 교육 배후의 폭력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고전이 담고 있는 풍부한 지혜, 삶과 인간에 대한 통찰, 비판적 자아성찰과 인격의 도야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하고 싶어한다. 물론 그래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의 처지에서 이러한 주제들이야말로 폭력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된다.

이른바 인문학 정신, 고전 교육의 중요성,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의 힘, 미학적 상상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등 모두 훌륭한 것들이고 옳은 말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옳은 것들일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훌륭하고 옳은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의도치 않게 폭력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다. 옳은 것을 실행하여 현실화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당사자들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조건에서 옳은 것을 현실화하려면 당사자 외부에서 강제력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이미 배워서 그런 것들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행동에 옮길 마음이 생기지 않고, 또 당장 스펙 쌓아 취직해서 생존해야 하는 일로 골몰하고 있어서 그러한 옳은 것들이 급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으며, 더구나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길 사회적, 제도적 조건도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고전이 담

고 있는 지혜를 느껴보라고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보라고 하며, 창의적인 상상력,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해보라고 한다. 이렇게 될 때 고전 교육, 광의의 의미에서 인문학 교육은 학생 당사자들의 삶의 세계와의 연관이 끊어진 채 외부에서 억지로 부과되는 물화된 가르침으로 체험된다. 그러니 폭력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다. 폭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귀를 닫는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말하는 인문학 정신은 소음이 된다. 교육자의 가르침은 냉소의 대상이 된다.

청년들에게 사회를 비판하며 다른 삶의 방식을 찾자는 논지의 글들을 읽은 후 학생들이 써서 제출한 글의 일부를 잠시 살펴보자.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나의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글이다.

>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비롯한 청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리저리 재단하고 이전 세대와 비교하고 평가하여 멋대로 단정짓는 일련의 과정들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 당장 생존경쟁에 내몰린 청년 세대에게 해결책을 제시 해주지도 않는다.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기분이 들어서 역시 썩 유쾌하지 않다. 누구는 당장 먹고 살 걱정에 골몰하는데, 어떤 이는 먹고 살 걱정에 골몰 중인 이들을 분석한다니 너무나 이질적이게 느껴지지 않는가. […] 저자는 청년들이 속절없이 생존주의에 함몰되어 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지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보다 고도의, 이상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쳐있는 사람에게 더 무얼 해보라고 부추기는 것만큼 못된 짓이 또 있을까. 싸워서 이겨내든, 무너져 내리든 혹은 제3의 방법을 찾든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망하며,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이런 태도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 (청년 3의 에세이)

> 두 사람 모두 SKY 나와서 유학도 하고 교수까지 된 사람들이고, 인생에서 실패는 안해 봤을 사람들인데, 실패가 일상인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 학벌주의의 수혜자인 교수가 학벌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얻는다.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 절대 지방대생들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마치 공감하는 '척' 하는 것이고, 단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진다. […] 그러니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위로가 되는 것이다(청년 4의 에세이)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글을 쓴 저자들이 냉소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당장의 구체적인 효용도 주지 못하

면서 청년들에게 비판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출하라는 요구는 편안한 '교수'의 위치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관망하며" 그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일로 체험된다. 또한 교수가 청년들을 위해 "학벌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정작 "학벌주의의 수혜자인 교수"가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단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냉소된다.

고전을 통해 인문학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 이러하다. 옳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을 탓해야 하는가? 아니면 옳은 말이 청년 당사자에게 어째서 폭력으로 체험되는지 그 사회적 맥락을 따져봐야 하는가?

4. 고전 교육의 목표는 힘의 강화이다

고전 교육은 물론 광의의 인문학 교육 전반은 결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제시해주거나 이러저러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한 후 안전한 교수라는 자리로 후퇴하는데 멈춰서는 안된다. 사실 많은 교육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도의 교육에서 멈춘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많은 교육자들은 '우리는 답을 줄 수 없고 학생들에게 다르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해주는데 만족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소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정당화한다. 그리고 안락한 교수의 자리로 후퇴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보호해줄 옷도 없이 생존해야 하는 가혹한 세계의 숙명 질서를 살아가는 '벌거벗은 생명'의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청년들이 교육자들을 '성 안'에서 자신들과 같은 '성 밖 사람들'을 "안쓰러운 얼굴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처지를 관망하듯이 바라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것이다(청년 3의 구술). 왜 교육자는 불온해서는 안되고, 스스로를 안전한 공간 안으로 한계지어야 하는가?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고전 교육의 목표는 당사자들이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고전은 청년들에게 자유를 위한 싸움의 실용적 무기이자 싸움의 기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무기는 단지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 삶의 위기는 단순히 인지적 수준에서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실천적 수준에서의 문제 상황이다. 즉 문제 상황으로서 삶의 위기는 자유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존재론적 힘과 특정한 방식으로 살 것을 강요하는 외부 세계의 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힘과 힘의 전투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곤경이다. 맑스(1988)가 말하듯 '(비판의) 무기의 비판이 (적의) 흉기에 대한 비판을 대신할 수 없는 법'이고, '힘은 또 다른 힘에 의해 격파되어야 한다.'

고전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고전 교육은 마땅히 그러한 무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기업, 대중매체는 바로 고전이 그러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아챘고 그

잠재력을 통치의 논리, 경영과 리더십의 논리, 처세의 논리로 작동하도록 배치해냈다. 문제는 이 배치를 뒤흔들어 국가, 기업, 대중매체 등에 의해 빼앗긴 잠재력을 청년 당사자들이 자유를 위한 싸움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럴 때 고전 교육은 니체가 말하는 존재론적 힘이 강화되는 유용성에 의해 확보되는 감정으로서 '즐거운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는 청년들에게는 '즐거움'은 커녕 폭력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고전 교육을 지속하거나, 국가나 기업,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고전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어느 쪽이든 교육자들이 생각한 고전 교육의 방향은 아니게 될 것이다.

5.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경우

지금까지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무기로서 고전 교육, 결국 같은 말이지만 니체가 말하는 '즐거운 학문'으로서 고전 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이 장에서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하나의 사례로 하여 고전 교육이 초점을 두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의 고전으로 뽑힌다. 보통 이 책은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책으로 읽힌다. 그리고 보통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교 및 대조하는 방식으로 읽히기도 한다. 사실 이 책을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채으로 읽고자 한다면, 이 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너무 많다. 가령 과연 서구에서 근대자본주의가 칼뱅파가 많았던 지역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들이 있다. 평생 낭비하지 않고 축적만 하는데 어떻게 자본의 증식, 확장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베버가 해석하는 각종 종파들의 교리 해석 역시 몰이해의 혐의가 뒤따른다. '왜 비서구가 아닌 서구에서 먼저 근대자본주의 정신이 등장했느냐'라는 질문방식 자체가 가진 서구중심주의 역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많은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베버가 전개한 기발한 발상의 독창성이나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의식은 그 책을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있게 만드는 생명력의 원천이다. 많은 미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글의 문제의식에 따라 베버가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힘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근대적 삶의 위기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고찰했는지에 집중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5-1. 힘으로서 합리화: 왜 인지적 합리화가 아니라 실천적 삶의 양식의 합리화에 주목했나

베버의 대표적인 용어들 중 하나가 '힙리성'이다. 근대로의 사회변동은 합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베버는 합리성을 다양하게 유형화하고 있지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등장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근대의 합리화 과정을 인간 삶의 구체적인 실천 영역 수준에서 추적한다. 사실 '근대의 합리성'이라는 말을 듣고 즉각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체계화나 생산 기술 등의 발전 역사이다. 과학과 달리 종교는 비합리성이나 전근대성의 대표적인 주제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베버는 그와 같은 과학적 지식의 합리화로 대표되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합리화를 통해 근대의 합리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종교' 현상을 통해 근대 합리성의 출현을 읽어낸다. 즉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개신교 교리의 체계화 과정에서 합리성의 뿌리를 찾는다.

그렇다면 왜 과학적 사고방식의 합리화과 아니라 종교 교리의 체계화 과정에서 근대적 합리성의 뿌리를 찾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버가 인간 삶의 인지적 수준이 아니라 인간 삶의 실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리화를 주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령 1+1=2라거나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하는 수학/과학적 사고방식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을 추동하는 것은 아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과학적 명제를 두고, 우리는 '그래서 뭐 어저라고'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가령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이미 신이 결정해놨다'라는 교리가 다양한 논변을 통해 체계화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내 바깥의 세계가 작동하는 객관적 법칙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 행위방식, 사고방식, 운명 등을 좌우하는 실존적 문제인 동시에 규범적 삶의 지침으로 곧장 나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에 인간들의 삶과 행위의 방식이 합리화되었다면 그 뿌리는 실천적 규범의 영역으로서 종교가 가하는 힘의 압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다른 것보다 베버가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삶과 행위의 근대적 합리화를 포착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근대 이후 인간의 삶과 행위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다면, 예를 들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면 그것을 조직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베버의 문제의식 배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볼 때 '평생' 철의 금욕적 노동윤리로 무장한 채 살아가는 근대적 인간 주체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은 종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는 금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가령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비를 최소화하여 돈을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나 낭비가 주는 쾌락을 평생 포기할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강한 힘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 그 힘의 압박은 알다시피 '죽어서 천국갈래 지옥갈래?'가 형태로 가해지는 종교적 구원의 협박이다. 내새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간을 천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내세에서의 삶에

비하면 잠시에 불과한 현세에서의 삶(하지만 그것은 한 인간의 평생이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베버는 우리의 삶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관성있게 반복가능하게 조직될 수 있으려면(즉 행위의 근대적 합리화가 가능하려면), 그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힘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점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범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실천적 행위 영역에서 작동하는 합리성이란 모종의 힘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정신, 근대 자본주의적 주체들을 낳은 것은 종교가 지닌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최소한 근대 초까지만 해도 서구에서 종교의 힘은 자본주의의 힘보다 강했고 따라서 자본주의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던 이 시기의 자본주의를 베버는 합리적 자본주의 또는 도덕적 자본주의라고 표현했다.

5-2. 힘의 역전: 자기목적화된 자본주의 작동 논리와 관료제적 행정 권력의 논리 그리고 최후의 인간

그런데 문제는 근대적 합리화 과정에서 종교의 힘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점이다. 니체의 표현을 빌면 근대는 '신이 죽은 시대'인 것이다. 신이 퇴거하면서 그 동안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있던 종교가 지녔던 힘이 약화된다.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는 자신을 낳은 모태였던 종교적 힘의 통제에서 벗어나 두 발로 서게 되며 급기야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종교적 힘으로부터 자립화된다. 이러한 상황은 돈을 버는 이유가 종교적 구원을 위해서라는 규범적 이유가 아니라 단지 벌기 위해서가 되는 상황, 말하자면 벌기 위해서 버는, 벌기의 자기목적화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이제 수행과 그 수행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버린 자기작동하는 기계 메커니즘으로 바뀐다. 베버는 이러한 상태에 돌입한 자본주의를 초기 근대의 자본주의와 대비하여 천민자본주의라고 칭한다. 종교의 도덕규범적 통제력에서 벗어난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이다. 하지만 천민자본주의는 나름의 형식 논리를 따라 일관되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정치 영역에서도 벌어진다. 수평적 우애(형제애)에 바탕해 이루어지던 공적 자기 결정 영역으로서 근대 민주주의는 관료제의 정치 기계로 바뀐다.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관료제라는 수단적 형태로 제도화해놨는데 이 도구로서의 관료제 제도에 응축되어 있는 합리성(형식합리성, 도구합리성) 이 구체적인 인간들의 정치적 구성이라는 민주주의 맥락으로부터 자립화되어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 메커니즘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인간들의 공적 자기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관료제는 여전히 나름의 형식 논리를 따라 일관되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이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베버는 이와 같은 근대의 역설을 집어낸다. 경제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그것의 합리성을 낳은 것은 종교적 힘이나 민주주의의 힘이었고 초기에는 그것들의 통제력

하에 있었으나 점차 힘 관계의 역전이 발생하면서 경제나 정치 영역에서의 합리성이 자기작동 메커니즘이 되어 그 발생 모태로부터 자립해버리는 상황이 바로 근대의 특징임을 베버는 지적한다. 이것이 경제와 정치라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합리화가 낳은 자유상실의 역설이다. 여기서 나는 베버가 문제를 힘 관계의 경합이나 길항의 구도에서 자유상실의 문제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제의 작동 논리나 관료제의 작동 논리의 힘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의 현대적 삶의 양상을 주조하고 강제함으로써 외적인 경제와 관료제의 힘에 의해 떠밀리듯 살고 있는 우리의 자유상실의 처지는 힘들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교나 민주주의를 모태로 하여 출현했으나 근대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점차 자립화하여 그것들의 통제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화된 기계 메커니즘으로서 오늘날의 경제와 관료제는 단지 자립화되는 것을 넘어 그 모태들로 파고들어 식민화하는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있다. 도덕규범의 영역마저도 경제논리를 따라야 하고, 민주주의도 관료제 기계의 비인격적 기계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다시 경제와 관료제 기계를 통제할 힘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베버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 답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베버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비관주의에 빠진다. 베버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자기작동논리를 통제할 힘은 없다는 비관 속에서 앞으로의 인류의 운명을 우울하게 예견한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될 최후의 인간은 두 부류가 될 것라고 의미심장하게 예견한다. 첫 번째는 '영혼없는 전문가', 두 번째는 '가슴없는 향락가.' 베버의 비관주의는 우리 시대의 우울한 풍경을 매우 정확하게 예상했다. 특히 고전 교육의 당사자인 청년 대학생들의 처지가 정확히 이러하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세계의 숙명적 힘에 떠밀려 그 힘의 작동 논리를 정확히 포착하는 전문가가 되어 생존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이 세계가 가하는 숙명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에 그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규범적 가치 판단을 할 생각을 못한 채 영혼없는 전문가처럼 세상을 살아간다. 이들은 살기 위해 산다. 자유나 의미는 뒤로 밀린 채 생존하기 위해 생존한다. 생존의 자기 목적화가 바로 이들의 삶의 형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삶이 고통스럽기에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삶의 중요 영역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 단편적이며 무의미한 쾌락 자체를 추구하는 가슴없는 향락가로서 살아간다. 가슴없는 향락가들은 실존의 힘이 강화되는 존재론적 의미로 충만한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잊고 순간의 즐거움에 탐닉하기 위해 즐거움을 추구한다. 즐거움 자체가 자기 목적화된다. 가령 디오니소스적 열정 속에서 존재의 변환과 힘의 강화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마신다.

5-3. 베버가 비관에 빠져 절망한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다.

자유와 의미를 추구하는 실존적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가하는 힘은 강력하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영혼없는 전문가와 가슴없는 향락가의 삶이 강제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위기에 내몰린 대학생 청년들에게 고전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고전 교육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

이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급히 답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처한 힘의 배치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힘의 배치는 내가 숙명적 비극의 구조라고 말한 형태를 취한고 있다. 외부의 숙명이 가하는 막강한 힘에 비해 개별화된 청년들이 그 힘에 맞설 힘은 매우 축소되어 있다. 맞서기는커녕 자신을 보호할 옷도 벗겨진 채 '벌거벗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처지이다. 벌거벗은 생명에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라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거나,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라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의도하지 않게 한가한 이야기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다. 벌거벗은 생명에게는 우선 옷이 필요하다. 의미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도 생존할 수 있도록 옷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옷을 자꾸 벗기려는 시장 경쟁의 힘과 국가의 힘에 맞서 더욱 튼튼한 옷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 두 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찾고 그 힘을 활용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해 능수능란하게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적 사고 능력을 고전 교육이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고전 교육(인문학교육)이 문화적 교양층으로서 이른바 지식인과 교수들의 자기 만족에 머물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폭력으로 작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벗어나려면 고전 교육자는 마키아벨리스트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고전 교육자들은 혹시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칸트처럼 사드의 폭력을 배후로 옳음이나 좋음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전 교육의 당사자는 대학생 청년이기 이전에 교육자 자신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수영. 1990.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백낙청 편.『사랑의 변주곡』. 창작과비평사.

김주환. 2020a.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절대적 고통 감정과 희생자-신 되기의 탈정치.”『사회와 이론』36: 49-92.

_____ . 2020b.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모험의 운명.” 『사회이론』57: 151-192.

_____ . 2000c. “의미상실과 자유상실의 시대, 청년들의 시간감각과 세계감각 속에서 가치의 전도.”『문화와 사회』28(3): 315-363.

니체, 프리드리히. 2005. “즐거운 학문”『즐거운 학문 메시나에서의 전원시 유고』. 안성찬, 홍사현 옮김. 책세상.

맑스, 칼. 1988.『헤겔 법철학 비판』. 홍영두 옮김. 아침.

짐멜, 게오르그. 2005. “모험.”『짐멜의 모더니티 읽기』김덕영 편역. 새물결.

코젤렉, 라인하르트. 1996.『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 문학동네.

베버, 막스. 2010.『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길.

▌제2발표 토론문▐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활용 :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권오용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발표자께서는 사회과학 고전을 가르침에 있어서 사회과학 고전이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p.1)이 될 수 있음 역설하셨습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청년들에게 “이른바 인문학 정신, 고전 교육의 중요성,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의 힘, 미학적 상상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p.6) 등을 가지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경험적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전이 청년들에게 ’효능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교육은 소음이 되고 만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발표자께서 보여주신 큰 주제에 동의하면서, 몇가지 보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 교육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인식의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지, 현실적인 변화 추구에 사용되는 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개인의 인식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면, 후자는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후자를 의미하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즉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발표자께서 기대하시는 “싸움의 기술“로서의 이용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전 교육이란 또다시 극히 일부의 청년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시하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전 교육의 문제는 고전을 흘러간 옛이야기 취급을 하는 교육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지만, 고전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럿 발견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내용의 경우에는 당대의 시공간적 한계 등을 언급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전이 현재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즉 고전의 현실감을 살려낼 수 있다면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닌 생생한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고, 이것이 종국에는 발표자께서 말씀하시는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전을 다룰 때 그 고전을 관련된 학문적 흐름 속에서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이 책이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등 배경과 맥락을 살려서 설명해주면 바로 이 '생생함'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고전교육이 폭력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육의 본질이 배우기 싫은 것을 배우는 폭력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어린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 기초 글자는 아무런 설명없이 외워야 하고, 사칙연산에 대한 귀찮은 반복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처럼, 청년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전교육을 시작하되, 시간이 지나면 고전 본연의 내용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경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발표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5 페이지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언급한 부분은 이방인에 대한 폭력을 희생자의 원인 탓으로 돌리는 논리와 동일하며 현재 이스라엘 정권과 과거의 핍박받던 유대인을 동일시하는 등 사실관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전체 논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발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의미와 현재성

발표자 : 김민수 ▌ 단국대학교
토론자 : 김동혁 ▌ 광주 과학기술원

▌제3발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의미와 현재성

김민수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양연구소

| 목 차 |

1. 들어가며
2. 『전체주의의 기원』의 구상과 구성
3. 『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 독해
4. 나가며: 『전체주의의 기원』의 현재성

1. 들어가며

정치철학에서 사상가의 저작과 사상을 이해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독해하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사상가가 답하려 한 문제와 퍼즐(puzzle)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는 사상가의 질문 지평을 형성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개인적, 개념적 맥락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과거의 사상가의 저작에 대한 이해의 과정은 해석자가 지닌 현재의 지평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해(understanding)는 현재의 해석 지평과 과거 지평의 융합” 이라는 가다머의 해석학적 방법[1]은 정치철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과거 사상가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해석 지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해석 지평에서 몰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과거 사상가의 질문과 해답으로부터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맥락적(contextual) 이해의 과정은 과거의 사상가가 서 있던 해석 지평 속에서 재구성된 퍼즐이 오늘날의 해석 지평 속에서도 의미를 지니는지 질문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이 의미로부터 과거 사상가의 사상을 재정식화(reformualtion)하는 것을 포함한다.[2]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철학자 중 한 명인 한나 아렌트의 주저인 『전체주의의 기원』(이하 『기원』, 인용의 경우 영문 약자인 OT를 사용)을 독해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이러한 정치사상 이해의 방법론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기원』이 집필될 당시의 아렌트가 형성했던 질문 지평의 재구성은 오늘날 『기원』을 독해

1) Hans-Georg Gadamer, 2004. Truth And Method, Trans. by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London: Continuum, p. 317.
2) Benhabib, S. (2003).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xlviii

하고 있는 우리의 해석 지평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아렌트의 퍼즐이 현재의 해석 지평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과 분리될 수 없다.

『기원』은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종합하는 주저이면서도 다른 저작들, 예컨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나 『인간의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저작이다. 오히려 스탈린주의와 나치즘 사이의 문제적 유비 때문에 좌파로부터 거부당했고, 냉전 진영의 양극적 이데올로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우파에게 비판받았으며, 과도하게 저널리스틱하고 문학적이며, 철학적 일반화를 한다며 실증주의 정치학자들에게 조롱당한 악명높은 20세기 정치이론의 텍스트였다.[3] 그러나 아렌트가 『기원』을 통해 제기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이나 잔혹성이 아니었다. 『기원』의 초판 제목은 The Burdens of Our Time(우리 시대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기원』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근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성찰하는 철학적 저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4] 실제로 『기원』의 전체 내용은 전체주의 자체보다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를 경험한 인류가 서 있는 근대성의 위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근대성의 위기에 초점을 맞춰 『기원』의 질문 지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근대성의 위기가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현재진행형의 과제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렌트가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민족국가(혹은 국민국가)와 자본주의로 인한 정치의 쇠퇴와 소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원』은 우리 시대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층위들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극단적 결과로서 등장한 전체주의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주고자 했던 저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을 오늘날 다시 읽는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원적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함께 어떻게 이 문제들을 넘어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기원』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렌트는 이 세계에 새롭게 태어나는 '신참자(newcomers)'들이 지니는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5] 새로운 세대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당사자들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지닌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원』을 통해 아렌

3) Benhabib, ibid. p. xliv

4) Benhabib, S. 2003,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지만 출판사의 제안으로 결국 제목을 수정하게 된다.

5) 새로운 세대가 정치 공동체에 가져올 선물은 예측불가능성이다. 아렌트는 이를 인간 사회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하면서 탄생성(natality)을 인간 존재의 한 조건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세대에 의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갈지 모르는 것은 정치의 축복이자 가장 불안정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이 탄생성을 회피할 수 없기에 새로운 세대에 의한 정치를 인간의 조건으로 간주하면서, 오히려 이로부터 인류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다. 탄생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참조.

트가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근대의 과제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대한 정치적 희망과 기대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아렌트가『기원』의 집필을 구상했던 배경과 질문 지평을 간략히 재구성해보고, 이러한 구상에 비추어 아렌트가 근대성의 위기로 특징지었던 주요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시대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과제를 검토하고, 그것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와 현재성을 제시해볼 것이다.

2.『전체주의의 기원』의 구상과 구성

앞서 언급한 대로『기원』의 초판 제목은 "우리 시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이는『기원』이 단순히 전체주의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당대의 절박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된 저작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에게 20세기 초 인류가 직면하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다움의 상실이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박탈한 것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이며, 따라서 인간다움(humanity)의 실현을 근대의 이상으로 삼았던 인류에게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보호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보았다. 아렌트가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데에는 그녀 자신이 경험했던 망명과 국적 상실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렌트의 저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권리상실과 '국적 박탈'의 문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6]

아렌트는 전체주의와 2차 대전이 막을 내린 지 4년 만에『기원』의 집필을 마무리한다.[7] 스스로가 전체주의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망명의 길을 선택했으며, 18년간 국적을 지니지 못한 무국적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아렌트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하여 전체주의라는 전례없는 현상을 이해하려 하였다. 즉, 인간다움의 상실 경험이 아렌트의 질문 지평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전체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닥친 불행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8]이 아니라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 것"을 의미했다(OT, viii).

---

6) Birmingham, P. 2006. Hannah Arendt and Human Rights: The Predicament of Common Responsibility. Indiana University Press.

7) 「전체주의의 기원」은 1945년부터 1949년에 걸쳐 집필되었다. 집필 과정이 길어진 것은 1948년에 벌어진 1차 중동전쟁을 전후로 시온주의 논쟁에 아렌트가 개입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lisabeth Young-Bruehl, 홍원표 역. 2007.『한나 아렌트 전기: 세계사랑을 위하여』, 제6장을 참조.

8) 아렌트는 자기 시대에 동일한 운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행을 자신에게만 닥친 불운과 불의라고 여기는 태도를 자기중심적 슬픔(self-centered bitterness)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대중사회의 위험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기원』 초판 서문에서 아렌트는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가 차례로, 그리고 "더 야만적"으로 등장하게 된 자기 시대의 비극적인 현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9]이 새로운 보장자를 필요로 하며, 이 보장자는 오직 새로운 정치적 원리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OT,* ix). 즉, 아렌트에게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이란 과거의 비극적 현상을 반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기원』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렌트가 전체주의라는 '전례없는' 사건이 단순히 반유대주의나 제국주의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렌트는 반유대주의의 결과가 전체주의가 아닌 시온주의(Zionism)였으며, 제국주의의 결과 역시도 전체주의라기보다는 인종주의(racism)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OT*, xv). 이는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요인과 정치적 행위자들의 의지가 우연히 결합된 산물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가 이러한 우연성과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체주의라는 시대의 비극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체주의가 비록 인간 존재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존재했으며, 여전히 인류에게는 정치적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원』을 독해하면 책 곳곳에서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혹은 근대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아렌트의 문제 제기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주의가 다시 도래하지 않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근대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류가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문제 제기는 『기원』이 아렌트의 다른 저작들과 비교해도 훨씬 더 풍부하고 시의적절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도록 한다. 근

9) 여기서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이 어떤 의미를 지닌 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아렌트는 『기원』 전반에서 존엄성에 대한 특별한 의미규정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원』의 12장 후반부에서 인간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어렴풋하게나마 등장한다. 여기서 아렌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동료 인간이나 우리의 이웃 민족들을 주체로서, 세계의 건설자로서, 공동 세계를 함께 건설한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OT, 458). 이는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에서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에 대한 질문을 신학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인간 실존의 조건들, 그 중에서도 행위능력을 가장 인간적인 특징으로 삼고자 하는 문제설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렌트에게 인간 존엄성은 선험적인 이상이나 가치의 문제라든가, 공동체적 삶에서 기원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고유성을 지닌 다양한 인간들의 행위능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인간의 다수성과 행위능력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humanity)을 구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성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할 수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새로운 세대들이며, 아렌트는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강력하게 표현하곤 했다.[10]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 세대가 남겨 놓은 과제 목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원』에서 아렌트가 제기하는 인류의 과제이자 근대의 근본적인 한계지점은 오늘날의 질문 지평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 민족국가와 자본주의라는 근대성의 두 축이 여러 모순을 내포한 채 근대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기원』을 현대적 질문 지평 속에서 재구성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기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의 핵심주장을 통해 근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재구성하면, 첫째는 행정적 보호의 대상인 약자들의 정치적 주체성의 복원, 둘째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개념의 재발견, 셋째는 사회적 원자화와 자기중심적 슬픔의 지양이 될 것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3.『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 독해

3-1. 보호의 대상에서 능동적 시민주체로

『기원』은 1부 “반유대주의”로 시작된다. 아렌트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반유대주의에 접근하는 방식을 차별화한다. 아렌트가 검토했던 기존의 주장들은 크게 반유대주의가 나치의 선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 반유대주의는 민족주의나 외국인 혐오증과 동일하다는 주장, 그리고 나치의 테러의 본보기로 유대인이 선택되었다는 희생양 이론과 유대인 혐오가 유럽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영구적 반유대주의에 대한 주장이다. 아렌트는 오늘날에도 반유대주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반유대주의가 사람들의 통념과 다를 뿐 아니라 희생양 이론이나 영구적 반유대주의 이론이 유대인 혐오자나 유대인 모두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반유대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게 된다고 주장한다(OT, 4-7). 반유대주의가 민족-국가의 확산과 유대인들의 동화, 정치적 해방 등과 관련한 복잡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아렌트의 주장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반유대주의의 책임이 희생자인 유

10) 각주 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세대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인간의 조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혁명론』에서도 근대 혁명의 유산을 재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로운 세대들에서 발견하고 있다.

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 이른바 희생양은 이제 세상이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대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다. 세상사에 관여하는 여러 집단 중 한 집단의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집단이 세상의 불의와 잔혹함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중략)...희생양 이론은 반유대주의의 심각성과 유대인이 사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가진 중대한 의미를 회피하려는 주된 시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OT, 5-6).

> 적어도 반유대주의 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설명하려는 이 두 교리(희생양 이론과 영구적 반유대주의)만이 유대인의 특정한 책임을 모두 부인하며, 또 특정한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 두 교리는 인간 행위의 중요한 의미를 내재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인간 활동의 가능성을 형해화시키는 근대의 통치 형태와 행위와 놀랄만큼 유사하다(OT, 8)

유대인이 반유대주의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아렌트가 1962년에 출간한『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유대인 사회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희생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처럼 이미『기원』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아렌트가 이를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근대의 한계지점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인용문의 '인간 활동의 가능성을 형해화시키는 근대의 통치 형태'라는 표현에 담겨있다. 아렌트는 근대의 가장 어두운 측면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행위(action)의 가능성이 노동(labor) 혹은 사회에 대한 순응(conformation)으로 대체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11] 인간의 행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근대 정치의 특징이고, 유대인을 단순히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이론이 이것과 유사하다면, 이는 결국 희생양이론이나 영구적 반유대주의가 유대인의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이나 인종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주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무고한 희생자로 간주하려는 행위는 유대인의 정치적 주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동시에 유대인의 정치적 책임까지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아렌트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기존의 통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희생자였던 유대인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리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유대인에게 비극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

11)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으로 행위(action), 작업(work), 노동(labor)을 검토하면서 이 중 가장 고유한 인간 활동은 정치 공동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작업과 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그것에 인간의 고유성이 담겨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행위보다 부차적인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인간의 조건』제1장 참조.

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단순히 통치와 보호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운명에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정치적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생자의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정치적 주체로의 복귀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근대의 통치 형태는 유대인뿐 아니라 근대인들에게 정치적 주체의 자리가 아닌 노동과 순응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렌트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희생양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가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로 전락한 근대인들에 대한 아렌트의 일침과 맥락을 지닌다. 공동 세계(common world)를 함께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행정적 보호와 관료적 통제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근대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의 처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들은 국가와 정부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처럼 수동적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의 취약한 지위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은 근대가 초래한 정치의 쇠퇴와 관료적 지배의 승리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적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재발견

『기원』의 제2부의 제목은 제국주의이지만, 주요 내용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을 특징짓는 인종주의적 사고방식과 관료적 지배의 일반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2부는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렌트는 유럽의 제국주의가 인종주의적 사고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관료들의 등장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제2부의 전개는 9장 “민족-국가의 쇠퇴; 인간 권리의 종말”에 이르러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부·동부 유럽의 신생 민족국가들이 종족적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발생했던 소수민족 박해와 난민의 발생은 전체주의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18세기의 인권 선언을 통해 등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가 민족-국가의 주권과 결합함으로써 특수한 권리로 전환된 20세기의 역사는 민족과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을 쓸모없

12) 번스타인의 지적처럼 아렌트가 여기서 제기하는 책임의 문제는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의미한다. 즉,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희생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번스타인(2009), 71쪽 참조.ㄷ4

는 존재로 낙인찍고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이렇게 민족-국가로부터 추방당함으로써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는 인간에게 과연 '인권'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도록 만들었다. 인간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권이 존재한다면 국적을 박탈당하고 국가로부터 추방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은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추상적으로 선언된 18세기 인권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 성원들 상호 간에 형성되는 구체적인 권리 생성의 노력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 (유대인을 비롯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권리,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중략)...정치조직의 상실이 인간을 인류로부터 추방한다(OT, 297).

> 이 새로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상황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 또는 인류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가 인류 그 자체(스스로)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OT, 298).

아렌트는 인간이 태어난다는 사실 자체, 즉 탄생성으로부터 인류에, 그리고 정치조직에 속할 권리를 지니며, 이 권리를 통해 정치공동체 속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리 생성을 위한 근본 권리 개념을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아렌트에게 인권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공동체에서 권리를 생성하려는 실천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권'을 자연적 본성이나 특성과 같은 인간의 추정적(presumptive) 속성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도덕적 의식의 사회적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13]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아렌트는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추상적 인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속에서 권리 주체들이 권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상호 노력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3. 사회적 원자화와 자기중심적 슬픔의 일반화

『기원』 3부는 전체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과정과 전체주의의 특징을 서술하

13) Michelman, Frank I. 1996. "Parsing 'A Right To Have Rights'". Constellations 3(2) p. 204

고 있다. 아렌트는 히틀러라는 전체주의의 지도자가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수용했던 대중(mass)의 등장을 결정적인 계기로 설명한다. 자본주의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던 인민(people)은 계급과 정당으로 조직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급과 정당에 의해 조직되지 못했던 이들[14]이 19세기 내내 제국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들로 남아 있었고, 특히 계급 정당이 확립되지 못한 중부·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이들을 전체주의적 대중으로 조직화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여기서 아렌트가 주목하는 지점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의 계급운동과 정당이 경험했던 한계와 실패였다.

아렌트는 20세기 초 유럽의 상황을 정당과 계급 제도의 붕괴로 규정한다. 모든 개인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대 정당제도의 이상은 소수의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정치로 대체되었고 대중은 공적 사안에 무관심해지고 심지어는 적대적이며, 정치문제에 중립적 태도를 고수하게 된다. 슈미트(C. Schmitt)로 대변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격자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덕분이었다. 이제 정당은 계급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갔고, 새로운 젊은 세대를 당원으로 충원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계급이라는 보호장벽의 붕괴는 잠자던 다수를 조직되지도 분화되지도 않은 하나의 거대한 대중으로 만들어 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대중의 정치적 의미를 기존 정당과 계급 운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기존 정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대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또 그들은 정말 중립적이어서 국가의 공적 사안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직되지 않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대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낙담과 정치에 대한 불신에 빠지게 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전체주의 운동 세력이었다. 이들은 의회민주주의를 경멸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여 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한 뒤, 의회의 다수가 실제로는 가짜 다수에 지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형성된 다수가 결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 전체주의의 위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전체주의 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그러나 아렌트가 강조하고자

14) 아렌트는 실업자, 부랑자 등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들로 낙인찍힌 이들을 가리켜 폭민(mob)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조직되지 못한 인민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 이 개념은 20세기에 와서 대중(mass) 개념으로 확장된다.

했던 것은 단순한 대중의 위험성이 아니다.[15] 아렌트는 대중이 왜 전체주의 운동과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대중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심취한 이유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계급사회가 붕괴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유럽 대중의 특수한 심리가 탄생했다. 대중에게 동일한 운명이 닥쳤지만, 대중들은 개인적 실패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특정한 불의의 관점에서 세계를 판단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슬픔(self-centered bitterness)이 개인적 고립 속에서 반복되었고, 그것이 개인적 차이를 소멸시키는 경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중을 묶는 공통의 끈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공동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자기보존 본능의 결정적 약화를 수반한다. 자신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사심없음, 즉 자신이 소모되어도 좋다는 감정은 개인적 관념론의 표현이 아니라 대중적 현상이 되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쇠사슬 이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는 옛 격언은 더이상 대중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복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서 빈곤의 쇠사슬보다 더 많은 것을 상실했기 때문이다(OT, 315).

대중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비참함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개인이 경험하는 불행으로 이해하는 자기 중심적 슬픔은 공동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거한다. 이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없도록 한다. 그 결과 대중은 “자기 이익의 철저한 상실, 죽음이나 개인적 파국 앞에서의 냉소적이고 권태로운 무관심, 가장 추상적인 관념들을 향한 열정적 성향, 가장 명백한 상식의 규칙에 대한 일반적 경멸”이라는 예상치 못한 특징들을 지닌 집단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OT, 316).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회적 원자화와 극단적 개인화 때문이었다. 개인화와 원자화는 대중으로 하여금 일상사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단순한 해결책으로 도피하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였다.

결국 아렌트가 제3부 전체주의를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전체주의의 위험성이나 대중의 위험성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회의 파편화와 극단적 원자화의 위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은 근대 이래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창작자이며, 우회할 수 없는 의사결정의 통로였다. 아렌트는 대중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

15) 만일 아렌트가 대중의 위험성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결코 인민이 정치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원』 뿐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는 복수성(plurality)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활동이 정치 참여이며, 근대 정치의 후퇴는 인민의 참여가 아니라 관료적 지배로 변질된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라 대중이 탈정치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전체주의가 인류에게 준 교훈은 대중의 위험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대중과 추상화된 관념의 결합이었던 것이다.

4. 나가며:『전체주의의 기원』의 현재성

아렌트의 질문 지평과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이런 방식으로 재구성했을 때,『기원』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이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 세계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동안 그에 저항했던 기존 사회의 정치적 조직은 수많은 패배의 경험 속에서 해체되거나 약화되었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적 조직이나 연대의 원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동 세계를 변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단적 정치 행위가 부재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사회적 원자화와 자기중심적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16]

이 과정에서 대중은 서로를 희소한 가치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이는 경쟁의 상대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감독관의 역할에 한정시키게 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였던 '정의'가 결국 '공정한 경쟁'이라는 제한적 의미로 귀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방증하고 있다.[17] 이제 부의 양극화와 성장의 정체로 인해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경쟁에서 낙오한 개인의 무능함이나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행정적 무능 탓으로 인식된다. 신자유주의적 자기 개발의 논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좌절하거나 자기중심적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는 노력하고 성공한 개인들이 획득한 경쟁의 결과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 권리는 천부적이며, 불가침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끊임없는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급급한 개인

16)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연대의 해체를 신자유주의의 도덕성과 비윤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홍중, 2009,「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사회와 이론』제14집 참조. 사회적 원자화를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 주체의 등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는 서동진, 2009,『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참조.

17) 공정한 경쟁 과정이 곧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 정의 담론을 유행시켰던 샌들(M, Sandle)에 의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주의(meritocracy)의 부정의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이클 샌들, 함규진 옮김, 2020,『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참조.

들은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에게 무관심해지며 희소한 자원 경쟁을 더욱 가중시킬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지나친 경계심과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의 변화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접촉의 증가는 이러한 원자화와 자기중심적 슬픔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많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성의 복원 혹은 재창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비대면 접촉은 상대를 동료 인간이자 시민으로 인식하게 하기보다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비인격체로 인식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온라인상의 폭력과 인격의 훼손은 정부의 행정적 통제와 경찰력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감독자이자 다양한 유형의 폭력과 인격 훼손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아렌트가 『기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유럽이 지금의 한국과 공유하는 유사성은 많지 않다. 한국에 반유대주의가 만연하지도 않을뿐더러 제국주의경쟁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전체주의의 핵심인 전체주의의 전위조직과 테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정치의 축소와 행정의 만능화, 개인적 소유의 배타성과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권리상실, 그리고 사회적 원자화와 자기중심적 슬픔의 일반화는 한 세기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 문제들이 단순히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정치와 자본주의, 그리고 민족국가라는 보편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렌트의 성찰과 대안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구 근대 사회의 모델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한국 사회는 이제 서구 근대 사회가 직면했던 위기를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외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급속한 사회적 전환을 맞이해야만 했다. 게다가 코로나 19 팬데믹과 급격한 기술변화가 가져온 사회적 원자화의 가속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해왔던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을 관료적 지배와 행정적 보호로 축소·환원하는 것에 대한 유혹은 강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가 경쟁의 심화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원자화의 경험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형성해나가기보다 정부가 개인적 욕구를 대리해주는 정치의 행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18], 여기에 정치의 사법화 경향마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축소된 정치는 종종

18)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존재이기도 하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원자화와 개인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관료에게 정치의 자리를 내어준 시민 주체에게 남는 것은 개인이 이미 소유한 권리의 확인과 보장에 대한 열망이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이다. 이 경우 타인은 잠재적으로 나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적대적 존재이며, 그 존재가 어떤 동일성(identity)도 공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인 경우 적대감은 극대화된다.[19]

시민 주체가 정치의 자리를 되찾는 것, 이를 위해 사회적 연대의 원리와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희망을 재발견하는 것,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적 권리가 원자화된 개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사회적 존재의 호혜적(reciprocal) 권리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한국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 기성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일 것이다.

근대 정치와 자본주의가 잠에서 깨운 거대한 대중은 한국 사회에서도 그 힘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결정적 힘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충분히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파괴적인 사회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20]『기원』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읽힐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가 지나온 부끄러운 발자취에 대한 기록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질문과 새로운 세대가 짊어져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한 미리보기로써일 것이다.

만, 뚜렷한 정치의 행정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 2019년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단순한 무슬림 혐오를 넘어서서 국민이 아닌 존재에 대한 적대와 배제의 정서는 생존 경쟁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다.

20)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대중이 지닌 불확실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지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내재한다. 아렌트 역시 새로운 세대가 지닌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그들이 기존 공동체에 가져오게 될 변화의 결과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OT,* p. 465 참조. 따라서 대중 정치가 지니는 자기파괴적 가능성 못지않게 새로운 세대가 지닌 자기파괴적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Arendt, Hannah.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이진우·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Ⅰ・Ⅱ』. 파주: 한길사(2006)

———. 1998. The Human Condition: With An Introduction By Margaret Canov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1996)

———. 1990. On Revolution. London; New York: Penguin Books. 홍원표 옮김. 「혁명론」. 파주: 한길사(2005).

Benhabib, Seyla. 2003.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Lanham:Row man & Little Field Publishers.

Bernstein, Richard J. 1996. Hannah Arendt And The Jewish Ques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김선욱 옮김.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서울: 아모르문디(2009).

Birmingham, Peg. 2006. Hannah Arendt And Human Rights: The Predicament Of Common Responsibil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Gadamer, Hans-Georg. 2004. Truth And Method, Trans. By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London: Continuum.

Michelman, Frank I. 1996. "Parsing 'A Right To Have Rights'". Constellations 3 (2): 200-208.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London: Allen Lane.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2020).

Young-Bruehl, Elisabeth, 2004. Hannah Arendt: For Love Of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홍원표 옮김. 「한나 아렌트 전기 : 세계 사랑을 위하여」. 고양: 인간사랑(2007).

김홍중, 2009,「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사회와 이론』제14집: 173-212.

서동진, 2009,『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배게.

▌제3발표 토론문▐

한나 아렌트의『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의미와 현재성

김동혁 | 광주 과학기술원

김민수 박사의 본 발표문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재독해를 통해서 근대성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20세기 초 자유주의의 붕괴와 파국의 시대에 대한 경험이라는 특수성을 좀 더 보편적인 근대성의 문제로 일반화하면서 동시에 21세기 현재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세계와 한국의 위기라는 시대적/지역적인 특수한 위기 국면을 분석하는 문제설정의 근거로 이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본고의 이러한 현재적, 맥락적 독해는 고전 읽기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근대성의 위기에 초점을 맞춰 『기원』의 질문 지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근대성의 위기가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현재진형형의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분석처럼 아렌트의 저서는 단순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를 분석함으로써 "민족국가와 자본주의라는 근대성의 두 축이 여러 모순을 내포한 채 근대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까지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렌트가 제시한 과제를 재구성함으로써 제기된 세 가지 과제, 즉 행정적 보호의 대상인 약자들의 정치적 주체성의 복원, 인간 존엄성과 인권 개념의 재발견, 사회적 원자화와 자기중심적 슬픔의 지양이라는 현재적 문제설정 내지 과제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현대의 '고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교육의 주요 과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필자는 본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큰 이견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 제기나 토론 논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묻고자 한다.

1. 본 발표문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아렌트가 반유대주의를 분석하면서 유대인이 반유대주의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통해 근대의 근본적인 한계지점 중 하나, 즉 인간의 정치적 주체 가능성의 차단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체주의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원자화와 자기중심적 슬픔의 일반화라는 문제를 통해 공동체적 정치의 형해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는 점이다. 실은 유대인 박해 문제라는 사건을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나 영구적 반유대주의 이론이라는 기존의 논점과는 달리 공동 세계를 함께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정치적 주체가 아니

라 단순히 정부의 행정적 보호와 관료적 통제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근대인의 문제로 분석함으로써 근대 정치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으로서 실은 근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의 계보 중 니체의 문제설정과 맞닿아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전체주의 분석을 통해 전체주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수용했던 대중(mass)의 등장을 중요한 계기로 설명하면서 계급과 정당에 의해 조직되지 못한 다수의 원자화된 사람들의 등장과 그에 의한 공동체적 정치의 형해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르크스적 관점의 정치, 즉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인간이라는 문제설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개체의 자율성, 창조성을 강조하는 니체와 공동체적 존재(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이 만나는 것이라고 볼 때 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구상이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아렌트가 제기하는 문제 즉, 노동 혹은 사회에 순응으로 대체되는 근대적 인간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과 공동체적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는 근본적으로 니체와 마르크스 이론 사이에서의 긴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두 번째는 발표 내용 보다는 향후 과제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러한 능동적 주체의 계발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즉,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현재와 같은 원자화된 개인들, 자기연민의 탈공동체적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별적 노력이나 개별 주체들의 주체화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주체화 과정에 대한 개입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제4발표▐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 교육 - 한양대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과목을 통해 살펴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

발표자 : 김성희 ▌ 한양대학교

토론자 : 남진숙 ▌ 동국대학교

▌제4발표▐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 교육
-한양대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과목을 통해 살펴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

김성희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 목 차 |

1. 인류세 시대와 과학교양교육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양교육
: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3. <인류세 시대를 위한 인문학>의 운영
4. 나가는 말

1. 인류세 시대와 과학교양교육

2018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새로운 지질시대를 칭하는 '인류세(anthropocene)' 연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는 기사와 함께 그해 7년간 100억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전공의 교수와 연구원이 융합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인류세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지칭하는 말로 1980년대 미국의 생물학자 스토머가 처음 쓴 용어였지만, 200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첸(Paul Crutzen)이 『네이처(Nature)』에 홀로세가 끝나고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2)]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인류세의 원인을 인간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3)] 지구와

1)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책임자인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간과 지구를 키워드로 삼아 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패러다임 변화를 살필 것"이라며 "더 나은 인류의 삶과 더 나은 지구를 함께 추구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사회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8.6.4, https://www.yna.co.kr/view/AKR20180604037500063 기사 검색 2020.12.1).

2) Crutzen, P. J. & Stoermer, E. F.(2000),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최평순·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2020), 『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나무; 신두호(2015), 「인류세와 문화연구의 과제」, 『문학과 환경』, 문학과 환경학회; 김지성·남욱현·임현수(2016), 「인류세의 시점과 의미」, 『지질학회지』, 52(2), 대한지질학회; 클라이브 해밀턴(2018), 정서진 옮김, 『인류세』, 이상북스.

3) 최명애·박범순(2019), 「인류세 연구와 한국 환경 사회학: 새로운 질문들」, 『환경 사회학 연구(ECO)

대기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활동들이 지질학과 환경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인류세의 원인에 기초해서 과학교양교육이 추구할 수 있는 과학교양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인류세의 원인이 되는 기초지식과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과학교양과 관련한 고전이 되는 책, 영화, 다큐멘터리, 인터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기술사, 그리고 과학문화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과학고전에 학습자들에게 소개하고 고전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 활동이 어떻게 인류세의 원인이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과학고전을 통한 과학교양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4]

둘째,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과학교양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대체로 과학기술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는 과학, 기술, 과학기술 자체로만 이해될 수 없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류세의 원인을 밝히는 과학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기저에는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그리고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추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인류세의 논쟁은 과학교양교육에만 국한해서 개설될 영역이 아니라, 각 학습자들의 전공영역에서 심화된 강좌로, 다양한 교수법에 기초해서 학습자들에게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인류세가 앞으로 더 심각한 논쟁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시도해 볼 수 있다.[5]

셋째,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실천적 활동에 기반을 둔 소양교육 측면에서의 과학교양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 과학교양교육은 과학 관련 전공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의 일상에 끼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자아 성찰과 실천을 일상에서 추구해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을 통해 과학교양교육에 대한 기초교육, 교양교육, 그리고 소양교육 맥락에서 과학교양교육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인류

』 23(2), 한국환경사회학회, 9쪽;

4)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에서는 인간 활동에 따른 인류세의 원인을 환경, 기후, 식수, 음식의 관점에서 과학교양교육으로 수강하는 학습자들에게 낯설지 않을만한 교재,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교재, 그리고 학습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 할 만한 교재를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누어서 선정했다. 또한 블랙보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녹화 강의를 통해 교수자가 본 교재를 선정한 이유와 의의를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과학교양교육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다.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본 교과 설계시 주교재와 부교재 선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다. 필자들 역시 이 지적에 공감하지만, 본 논문은 과목의 주제 구성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교재 선정에 대해 더 세부적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내용은 추후 보완 연구를 통해 다른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5)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에서는 크게 보면 과학교양교육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본 교과가 개설된 미래인문학융합전공 내에서 선택할 때는 어떤 학습자에게는 과학교양교육으로 선택된 과목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습자에게는 미래인문학융합전공 내 전공과목으로 설계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추후에 인류세의 구체적인 사례와 학자들 그리고 원인들에 따라 다양한 과목개설과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의 개념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인류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세와 과학교양교육의 운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양교육: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2-1. 주제 영역 구성 : 환경-기후-식수-음식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 형식적인 요소, 내용적인 요소, 교수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표 1>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의 요소

구분	내용
기본적인 요소	▪ 수강생 현황: 1~4학년 ▪ 수업시간: 3시간 ▪ 수강 학점: 3학점 ▪ 교과목 개설 이래로, 평균 수강생 숫자: 20명 ▪ 일부 수강생의 경우, 전공수업 ▪ 일부 수강생의 경운,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 수업
형식적인 요소	▪ 플립러닝에 기초한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 녹화 강의 개수: 8개 ▪ 녹화 강의 평균 시간: 25~35분 ▪ 교실(코로나 이후 실시간 온라인 수업) 수업 3시간
내용적인 요소	▪ 인류세를 둘러싼 정치 사회문화적 이슈: 환경, 기후, 식수, 음식(육종) 등 ▪ 주교재 6권 + 보조교재 6권 + 온라인 녹화 강의 8개
교수적인 요소	▪ 코로나 19 이전: 플립러닝 + 온라인 실시간 강의 + 교실 수업 ▪ 코로나 19 이후 및 with covid-19: 플립러닝 + 온라인 실시간 강의 +오픈카대화방 활용 + 교내 LMS(블랙보드) 활용 + 토론토의(줌 zoom)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에서 다루는 교재는 주교재 6권과 부교재 6권이다.[7] 이 중 주교재 2권과 부교재 2권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기술

6) 본 교과목은 2016년~2018년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 인문역량진흥사업(CORE)에 일환으로 교과목 설계와 과목개발을 통해서 개설되었고, 미래인문학융합전공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통트랙(융합코디네이션) 분과 중 한 과목이다. 본 교과의 성적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7) 주교재 6권과 부교재 6권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기후·식수·음식을 주제로 운영된 사례에 주안점을 둔 사례를 소개했다. 추가적으로 다룬 주제는 인류세의 원인을 정치사회경제적인 원인으로 보는 측면에서의 주교재와 부교재로(『의혹을 팝니다』, 에릭 M 콘웨이과 『셀링 사이언스』, 도로시 넬킨)와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보는 부교재2권(『문명의 붕괴』,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인간 없는 세상』, 앨런 와이즈먼)을 추가적으로 다룬다.

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인류세 논쟁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교재로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숙고해 봐야 할 기초교재·기초논의에 해당하는 교재들이 크게 다루는 수업 주제와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 주제 구성

주제 영역	주교재	부교재	교육목표
환경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대논쟁 (스펜서 위어트)	불편한 진실 (앨 고어)	학습자들이 인류세와 관련한 논쟁이 평면적으로 일차원적으로 '문자'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나-우리'와 관계된 논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기후	기후변화의 정치학 (앤서니 기든스)	인류 종말 리포트 (마거릿 애트우드)	학습자들이 기후문제의 심각성·미래세대·타자들과의 이해관계 속에 복잡한 사회적·정치적 시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식수	식수 혁명 (제임스 셀즈먼)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학습자들이 마시는 물(식수)속에 숨겨진 인류세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음식	마이클 폴란의 행복한 밥상 (마이클 폴란)	제3의 식탁 (댄 바버)	학습자들의 생명 유지와 관계된 먹거리·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숨겨진 종자·토양의 문제 등을 통해 인류세의 논쟁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짚어본다.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에서 다루는 환경, 기후, 식수 음식과 관련해서 추구하는 각 항목의 교육목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에서 제시하는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각 주제의 기초지식 및 기본지식을 익히는 것은 기초교육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주제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히는 과정은 교양교육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주제가 학습자들에 경고하는 메시지들은 학습자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교양을 실천에 어떤 이바지를 할지 각 학습자의 전공과 관심사와 연계해서 메타 인지(meta-cognitive)적으로 학습자의 생애 전반에 소양교육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8)]

8) 석주연·이상욱(2018); 이상욱(2015; 2019a; 2019b)

3.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의 운영

3-1. 매체를 활용한 인류세 교육

교수 환경에서 매체의 활용은 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칭하는 것이다. 수업환경에서 교수 매체의 활용은 첫째, 매개적 보조 기능으로 매체의 활용방법에 따라 학습효과가 다르게(확대, 재편) 나타날 수도 있고, 학습자에게 학습의 흥미 및 동기 유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교육목표에 들어맞는 매체의 활동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전달, 시청각 및 다 감각적인 정보전달, 인쇄 매체, 대중 통신매체 등을 통해 정보전달의 기능을 한다. 셋째, 교수 매체 자체가 학습 내용을 포함함으로 학습경험의 구성(재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기능적인 경험 습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악기 연주 등). 넷째,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적합하게 변형시켜 지적 능력 개발 및 인식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수업에서는 위와 같은 교수 환경에서 주는 매체의 긍정적인 측면에 착안해서, 각 주차의 교육목표에 들어맞는 콘텐츠와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교과목명인 인류세에 대한 개념이 낯선 학습자들을 위해서 신문기사에 언급된 인류세의 개념을 소개하거나, 방송에 소개된 인류세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인류세에 대한 개념적 인지 및 수렴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전달을 수행했다.

<표 3>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의 매체 활용과 실천 활동

교수 활동	매체 활용	실천 활동
의사소통(communication)	신문기사 / TED 강연 / EBS 등의 다큐멘터리 영상 / 인류세 관계자들의 Youtube 강연 영상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수강으로 인류세 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전달(transmission)		
한 방향(one way)		

2020-02학기 수강생 총 13명 중에서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의 매체 활용을 통해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수강으로 인류세 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수강인원 중 92.31%(12명)의 수강생이 인류세 수강으로 인류세 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라는 응답을 했으며, 7.69%(1명)의 수강생이 "인식의 변화가 없다" 라는 응답을 했다. "인식의 변화가 없다" 라고 응답한 수강생의 경우는, 본인이 이미 "환경에 관심이 많아 환경단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부족하나마 채식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 에, 특별히 본 수업에서 매체를 활용한 인류세의 기본 개념 전달 및 논쟁거리에 대한 주의 환기가 특별히 기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동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대부분 수강생의 경우에는 환경문제는커녕 인류세의 개념, 인류세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수강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체를 활용한 교수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본 강좌의 교육목표와 미래사회와 인류세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다는 점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팀플레이와 소그룹 토론을 활용한 인류세 교육

산업사회에서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소위 선진국의 교육역량은 3R(Reading, wRiting, aRithmetic)이었으나, 최근에 교육의 문제는 무엇을 배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통해 4C를 넘어 6C(Collaboration, Communication, Content, Critical Thinking, Creative Innovation, Confidence)를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9] 대학 교양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대적 변화에 맞춘 대학교수법의 혁신과 대학 교양과목의 재편 및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으로는 문제 중심학습, 프로젝트기반 학습, 액션 러닝, 액티브 러닝 등의 확대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의 교수법 특강 등을 통한 지원과 포럼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중에서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에 기초가 되는 것은 팀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팀플레이)과 토론 활동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전에도 짧은 수업시간으로 인해 다루지 못한 논의들은 온라인 토론 활동(공간적 제약 극복)과 게시판 형태의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간적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되었다.

<표 4>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의 팀플레이(소그룹 토론)와 실천 활동

교수 활동	팀플레이와 소그룹 토론	실천 활동
의사소통 /상호작용 (interactivity)	▪ 중간고사 이전: 강의 + 소그룹 토론조/조원 동일하게 운영(블랙보드 활용) ▪ 중간고사 이후: 팀플레이(중간고사 이전에 짜여진 소그룹 토론조 멤버들) + 매주 다양한 수강생들과 교류하면서 소그룹 토론(zoom+블랙보드 활용)	▪ 중간고사 이전: 블랙보드에 업로드된 강의 영상 시청 후, 강의 영상 끝에 제시된 질문 2개 + 주교재 강독 후, 개별 질문 2개 ▪ 중간고사 이후: 팀플레이 조원들이 제시하는 질문 2~3개 + 개별 질문(실시간 온라인 강의시간) + 수업 이후 온라인 토론을 통한 질의응답
교류 (transaction)		
양방향 (two way)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에서는 수강생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을법한 인류세의 주제인 식수·음식을 주제로 팀플레이와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수강생

9) 로베르타 골린코프·캐시 허시-파섹(2018), 김선아 옮김

들이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교수자의 수업과 녹화된 영상에서 제시하는 2개의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각자 생각하고, 블랙보드 플랫폼에서 소그룹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는 학습자들 간에 낯섦을 줄이기 위해,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매주 같은 팀원들과 소그룹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소그룹 토론을 했던 멤버들이 한 팀으로 팀플레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고사 이전에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유대감이 있는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기초한 팀플레이이지만, 수강생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종의 안전 기제를 마련했다. 그리고 팀플레이 발표 시에, 나머지(팀플레이를 수행하는 조 이외의 멤버들) 수강생들은 중간고사 이전의 조원이 아닌 다른 수강생들과 소그룹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4.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대학에서 인류세 시대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과학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양대학교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의 주제 구성과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인류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인류세의 개념과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한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학습자들에게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은 인류세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기초교육·교양교육·소양교육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의 개설 배경과 주제 영역·교육목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의 교수 활동과 실천 활동을 통해 과학교양교육이 이론적 지식 습득·이론학습으로 교실 교육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인류세에 대해 갖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수강하는 학습자들과의 토론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체험, 그리고 교내외 활동과 자신의 전공과 관계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학교양교육의 범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대학 과학교양교육의 역할과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대학 과학교양교육 교과목의 교육적 목표는 학습자들의 실천·소양교육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지역사회 기반·프로젝트 및 과제기반 학습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계기와 학습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평가 방식에 있어서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대학 과학교양교육이 다루는 교과목의 다양화와 그 주제를 단계적 학습의 기회, 융·복합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관계자, 교수자의 학습공동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가 선제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대학교양교육이 다루는 주제를 좀 더 세분화된 교육목표를 가지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인류세와 관련한 교과목의 분반 및 심화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세를 주제로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활용해, 학습자들 교육적 필요에 기초한 교과목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소희·강은경·김성천·김영자·김인엽·류광모·박세진·이문수·홍섭근·황유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2020),『소환된 미래 교육』, 테크빌 교육.

김지성·남욱현·임현수(2016),「인류세의 시점과 의미」,『지질학회지』, 52(2), 대한지질학회.

김환석(2018),「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신유물론」,『지식의 지평』25, 한국학술협의회.

김환석(2019),「신유물론 관점에서 본 인류세」,『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12. 한국사회학회.

로베르타 골린코프·캐시 허시-파섹(2018), 김선아 옮김,『최고의 교육』, 예문아카데미.

류방란(2018),『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한국교육개발원.

박범순(2018), KAIST, 새 지질시대 '인류세' 본격 연구 나선다, 연합뉴스 2018년 6월 4일 (검색일 2020.12.1)
https://www.yna.co.kr/view/AKR20180604037500063

박영숙·제롬 글렌(2020),『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교보문고.

석주연·이상욱(2018),「인공지능 시대 교사의 역할」,『인문학연구』55,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신두호(2015),「인류세와 문화연구의 과제」,『문학과 환경』, 문학과 환경학회.

이상욱(2015),「기후과학의 철학적 쟁점 : 성공적 융합연구를 위한 인식론적 조건과 윤리적 함의」,『과학철학』, 18(1), 한국과학철학회.

이상욱(2019a),『과학은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한다』, 휴머니스트.

이상욱(2019b),「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 함의와 쟁점」,『인간연구』39, 인간학연구소.

연합뉴스(2018.06.04), KAIST, 새 지질시대 '인류세' 본격 연구 나선다(검색일 2020.12.09)
https://www.yna.co.kr/view/AKR20180604037500063

최명애·박범순(2019),「인류세 연구와 한국 환경 사회학: 새로운 질문들」,『환경 사회학 연구(ECO)』23(2), 한국환경사회학회.

최평순·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2020),『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나무.

클라이브 해밀턴(2018), 정서진 옮김,『인류세』, 이상북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검색일 2020.12.9),
http://konige.kr/sub02_08.php

한양대학교 미래인문융합전공학부, 전공소개(검색일 2020.12.9)
http://humanities.hanyang.ac.kr/front/department/humanity/college/introduc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Innovation(검색일 2020.12.9)
http://www.oecd.org/education/ceri/40805069.pdf

Crutzen, P. J., & Stoermer, E. F.(2000),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제4발표 토론문▐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 교육
-한양대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과목을 통해 살펴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

남진숙 | 동국대학교

이 논문의 대상이 된, 교과목은 현 시대의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시기 적절한 교과목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현재 이와 유사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어서 이 강좌가 더 관심이 간다.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조언을 드린다.

본 발표문에서 '팀플레이와 소그룹 토론을 활용한 인류세 교육과 교육매체를 활용한 인류세 교육' 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방법은 다른 교과목에서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이 수업에서만의 교수학습법의 특징은 아닌데, 서술한 내용 이외에 특별히 이 두 가지 요소에 더 중점을 두는 이유와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논문에서 기술했듯이 인류세의 문제는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이고 융복합적인 사고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융복합적인 사고에 위와 같은 교수학습법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주면 좋을 듯하다.

두 번째 질문은 제목이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교육: 한양대학교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과목을 통해 살펴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 인데, 제목에 인문학이 빠져있고, 부제목에도 미래인문학이라고 했으나, 사회과학 고전읽기 구성과 운영이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오히려 사회과학에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인데, 이렇게 되면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과목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결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실천적 결과물이 있는가. 이 수업은 실천적인 프로젝트와 연결이 될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업의 커리큘럼도 실천적 프로젝트와 연결해야 명분이 생긴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과목과 관련한 심화교과목을 만든다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한다. <끝>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발행일 : 2021년 6월 4일
발행처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발행인 : 윤승준
주 소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인문관 404호 405호
전 화 : 031-8005-2657, 2658
홈페이지 : https://cms.dankook.ac.kr/web/rclass/

본 학술대회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됨
(NRF-2019S1A5C2A04083354)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인문관 404호, 405호
Tel : 010-8005-2657, 2658 Fax : 031-8021-7238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Inmunkwan #404, 405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16890, South Korea
http://cms.dankook.ac.kr/web/rclass/
Phone : 010-8005-2657, 2658 Fax : 031-8021-7238